

“민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를 2008년도 업계실천 슬로건으로”

일본 공조위생공사협회

일본 일본공조위생공사협회는 지난 5월 28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60회 통상총회를 열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획총무부문의 설비공사의 직접발주(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이다.

일본 공조위생공사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민간발주자 등에 대하여 설비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민간발주자에게 “설비는, 전문가인 설비공사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주십시오!”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직접발주(분리발주)”라는 용어의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에게 원·하도급 간에 계열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공공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정착되었으나 민간발주 부문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 공조위생공사협회는 민간공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0% 분리발주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공조위생공사협회가 총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이다. [편집자 주]

2008년도 업계 실천 슬로건

우리 공조위생공사업은 쾌적공간의 창출과 지구환경의 보전을 책임지는 산업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뛰어난 기술과 품질의 확보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개혁에 착수함과 동시에 일치단결하여 다음의 슬로건을 실천한다.

1. 법령의 준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 운영을 철저히 하자.

2. 지구환경의 보전, 에너지절약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저탄소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3. 공조위생설비의 중요성과 ‘직접발주(분리발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기계설비 일식공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적정가격의 수주를 추진하고, 품질·안전과 적절한 시공체제가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5. 미래를 짊어질 기술자·기능인의 확보 육성과 업계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번역 : 은근수/대한설비건설협회 월간 ‘설비건설’ 편집위원]